



김진명 | 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양식비평적인 시각에서 윗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역사적 단편소설(short story) 혹은 중편소설(a novella)이라고 부른다.<sup>2)</sup> 그 가운데 윗기를 단테의 ‘신곡’(神

1) \* 본 논문은 장신대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근동’과 ‘중동’과 ‘극동’이라는 낱말들은 서구 유럽의 시각에서 파악한 아시아 대륙의 방향과 공간 개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보았을 때의 방향과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서아시아’라는 용어의 사용을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방위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서아시아 종교’라는 용어는 기존의 구약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대 근동 종교’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Phyllis Trible, "Ruth, Book of," *The Anchor Bible Dictionary (ABD)*, vol.5 (New York: Doubleday, 1992), 843 참조; Irmtraud Fischer, *Rut, Herde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eiburg/Basel/Wien: Herder, 2001), 24-48.

曲, Divine Comedy)에 대비되는 ‘인곡’(人曲, A Human Comedy)이라고 이름붙이는 경우도 있고 (Phyllis Tribble), 룯기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묘사는 간접적이고 모호하며, 이 책은 오히려 과부들이 중심이 된 과부의 이야기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T. C. Eskenazi & T. Frymer-Kensky).<sup>3)</sup> 심지어 룯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미미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두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고, 룯기의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 혹은 방관자로 평가하기도 한다(J. Miles).<sup>4)</sup>

룯기는 전체가 85절로 구성된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sup>5)</sup> 그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sup>6)</sup> 이 가운데 룯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문제는 모압 여인 룯에 관련된 논쟁의 문제이기도 하다. 룯기를 소설로 보거나, 혹은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목적에 의해 기록된 문건으로 보고 연구하거나,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고의 틀(paradigm) 중심에는 ‘하나님’에 관한 주제 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비중 있게 놓여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룯기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러한 사고의 단적인 예이면서 동시에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하게 되는 물음은 과연 룯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

3) Eskenazi, T. C., & Frymer-Kensky, T., *JPS Bible Commentary: Ruth, JPS Tanakh Commentary*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19-25.

4) J. Miles, *God: A Biography* (London a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95), 343.

5) 강사문의 3인 공저, 『구약성서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28.

6) 룯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트리블(Phyllis Tribble)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줄거리 요약에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부각시킨 형태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Phyllis Tribble, 윗글, 842-843. 한편, 이은희(Eunny Lee)는 나오미를 중심인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룯을 이 책의 여주인공으로 제시하였다. Eunny Lee, "Ruth, Book of,"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IB)*, vol.4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688. 전통적으로 룯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아왔고, 남성 저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여성 저자일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왔다. Introduction to Ruth,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Wheaton: Crossway Bibles, 2005), 475-477 참조; Phyllis Tribble, 윗글, 843.

한 묘사가 문학적으로 모호하고, 신학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윗기의 최종 본문 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윗기에 나타난 종교적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 2. 연구방법

윗기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형성사를 탐구하고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통시적 연구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공시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윗기의 최종본문 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한 본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본문들의 문학적 위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수사학적 기능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고대 서아시아 종교들 가운데 윗기 본문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가나안과 모압 지역의 종교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한 본문들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와 신학적 주제들을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과 구약의 비교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윗기의 저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답을 새롭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이다.

## 3. 윗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사

‘모압 여인 윗’이라는 표현은 이 책에서 일곱 번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의 이스라엘 공동체 유입을 금지한 율법(신 23:3)에 근

거한 구약의 정서상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sup>7)</sup> 하지만 룯기는 동시에 잠언 31장 10절에서 구약의 존경받는 여인상을 묘사할 때 사용된 ‘현숙한 여인’(룯 3:11)이라는 칭호를 룯에게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찬사에 해당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sup>8)</sup>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이 한사람 룯에게 적용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모압 여인 룯과 관련된 논의는 이 책의 저작 연대에 관한 입장들과 맞물려서 다윗 왕조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를 거쳐 포로기 이후까지 다양한 의견들로 제시되어 왔다.<sup>9)</sup> 룯기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가운데는 이 책의 저작 목적을 탈-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룯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 1)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방인 통혼 금지 정책에 대한 저항

젠어(E. Zenger)는 룯기의 형성 시기를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 주전 5세기에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특징은 포로기 이전에는 생각할 수

7) K. M. Saxegaard, *Character Complexity in the Book of Rut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200 참조; P. J. Calderone, "Ruth, the book of," *New Catholic Encyclopedia (NCE)*, vol.12, (Washington, D.C.: Thomson/Gale, 2003), 437 참조.

8) Phyllis Trible, *윳글*, 846 참조. קַיִן הַיָּפֵת(에셋트 하일/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에서 언급되었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룯에게 적용되었다.

9) 트리블(Phyllis Trible)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방인 통혼 금지 정책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과 포로기 이전 시대의 다윗 왕조 상황을 전제로 한 두 가지 입장들로 구분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Phyllis Trible, *윳글*, 843; 라우(P. H. W. Lau)는 룯기의 저작 시기를 왕정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 양쪽 모두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P. H. W. Lau, *Identity and Ethics in the Book of Ruth*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1), 52-53; 닐젠(K. Nielsen)은 구약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 시기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포로기 이전 시기로 보는 입장에 일반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적어도 룯기의 저자가 궁정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K. Nielsen, tr. by E. Broadbridge, *Ru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29; Campbell, David, Herbert, Glanzman 등의 저작시기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박동현의 15인 공저,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13-514를 참조할 수 있다.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는 롯기가 이방 여인과의 혼혈결혼을 반대하는 정책에 저항하고, 인종적 기준에 따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용 기준을 반대하는 책이라고 본다.<sup>10)</sup> 에스라-느헤미야 시대 이후의 율법주의 전통은 유대인 포로귀환 공동체 내에서 종교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으로 연결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과의 강제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신명기의 결혼법(신 7:1-5)에 대한 협의적 해석의 결과였다. 따라서 롯기는 주전 4-5세기 경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신명기적 율법에 저항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대항한 보편주의를 옹호하려고 만든 이야기이며, 롯의 사례를 통해 율법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작된 책이라는 것이 포로기 이후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배경을 전제로 롯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sup>11)</sup>

## 2) 왕정시대 다윗왕조의 정통성 변론

캘더론(P. J. Calderone)은 롯기에 나타난 고전적 산문 문체와 인물들의 상세한 심리묘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이 책은 야위스트(Yahwist)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솔로몬의 인문주의 시대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압 여인 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벽하게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책의 내용이 다윗 조상의 합법성을

10)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이종한 옮김, 『구약성경 개론』 (왜관: 분도출판사, 2012), 392-393; K. M. Saxegaard, *윳글*, 201. 롯기의 기록 시기와 기록 목적에 관하여 삭세 가르드 (K. M. Saxegaard)도 쟁어와 거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Irmtraud Fischer, *윳글*, 91 참조.

11) 민경진, 『민교수의 구약해설』 (인천: 도서출판 제이앤케이, 2013), 108-109; Eunny Lee, *윳글*, 865-868; T. C. Eskenazi & Frymer-T. Kensky는 롯기 1장 4절의 히브리어 נָשָׂא(나사/두다, 올리다, 받아들이다 등)가 포로후기 이방여인과의 결혼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포로기 이전에 '나탄'(주다) 혹은 '라카흐'(붙잡다, 취하다) 동사를 사용했던 용례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람어 등의 언어적 증거 자료들이 롯기의 저작 시기를 주전 5세기 혹은 포로 후기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한다. T. C. Eskenazi & Frymer-T. Kensky *윳글* 7, 22.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2)</sup> 허버드(R. L. Hubbard, Jr.)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다윗 왕권에 대한 대중적 인정을 얻는 것과 다윗 통치하의 이방인에 대한 수용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 룻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sup>13)</sup> 룻기의 저작 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보는 학자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룻기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다윗 왕조를 변론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sup>14)</sup>

### 3) 탈-역사적인 의미의 다양성 제공

이은희(Eunny Lee)는 룻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역사적 배경 연결은 오히려 곡해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책에 반영된 사회, 정치, 종교, 미학적인 의미의 다양한 층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쟁적이거나 선전적인 특징이 이 책에 나타나지 않으며, 룻기는 독자들에게 신실함의 본보기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트리블(Phyllis Trible)도 비슷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룻기의 내용과 저술 목적은 풍성함과 다양성을

12) P. J. Calderone, *룻글*, 438; 룻기의 문체에 관하여 로드코프(A. Rothkoff)도 왕정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히브리어의 복쪽 방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A. Rothkoff, "Ruth, Book of," *Encyclopedia Judaica (EJ)*, vol.14 (Jerusalem: Keterpress, 1973), 521; 한편, 캠프벨(E. F. Campbell, Jr.)은 룻기를 역사 소설로 규정하고,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신앙적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의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책의 언어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후대 보다는 주전 950-700년의 왕정시대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 F. Campbell, Jr., *Ruth, The Anchor Bible (AB)*, vol.7 (New York: Double Day, 1975), 8-28.

13) R. L. Hubbard, *The Book of Ru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39-41.

14) 민경진, *룻글*, 109.

15) Eunny Lee, *룻글*, 867.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룯기를 저항문학이나 특정 역사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의 어투와 내용은 논쟁적이지 않으며, 시기도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입장들은 룯기의 기록 목적을 탈-역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4. 룯기의 문학적 구조와 수사학적 표현들에 나타난 하나님 이해

송병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계시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룯기에 없다는 점을 들어, 룯기의 하나님을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한다.<sup>17)</sup> 하지만 그는 약 45절에 이르는 룯기의 대화부분에서 1/2 정도의 구절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책 전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1/4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18)</sup>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와는 룯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룯기의 중요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언급하였고, 다양한 신명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룯기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한 본문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 1)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의미 해석

1:1-5 상실의 가족사

---

16) Phyllis Trible, *읽글*, 846.

17) 송병현, “룯기의 신앙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사사기·룯기』 두란노 HOW주석 vol.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421; 작세가르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룯기 1장 6절과 4장 13절의 주요한 본문들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K. M. Saxegaard, *읽글*, 205; 이러한 특징들은 룯기의 지혜문학적 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송병현, *읽글*, 421.

1:6-18 여성들을 연결하는 친족관계 협상

1:19-22 여인들 앞에서 나오미의 탄식

2:1-3 / 3:1-5 생존 방법에 대한 룻과 나오미의 숙고

2:4-17 / 3:6-15 룻과 보아스의 만남

2:18-23 / 3:16-18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함

4:1-12 남성들을 연결하는 친족관계 협상

4:13-17 나오미의 회복에 대한 여인들의 축하

4:18-22 풍요의 가족사

위의 표는 룻기의 각 장별 내용과 전체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sup>19)</sup> 최종 본문 상에서 룻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대조적인 주제가 놓여 있으며, 기근과 이주와 불임과 죽음의 위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위기의 해결을 통해 결말에 이른다.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은 1장 6절과 4장 13절이다. 두 본문은 서로 상응하면서도, 룻기의 전체 구조에서 상실과 풍요 주제가 전환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룻기의 처음과 끝에 배치되어, 책 전체를 감싸는 ‘수미상응구조’(inclusio)의 틀을 이루고 있다.<sup>20)</sup>

1:6 לָהֶם לֶחֶם לְהֵם לֶחֶם לְתַת אֶת־עֵצֵי יְהוָה יִקְרָךְ כִּי־פָקַד אֱדוֹנָי אֶת־אִמּוֹ לֶרֶטֶ  
트 라헬 라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4:13 וַיִּתֵּן יְהוָה לָהּ הַרְיוֹן וַתֵּלֶד בֶּן׃ (바이텐 아도나이 라흐 헤라온 바렐레드 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9) Eunny Lee, *읽글*, 866.

20) Eunny Lee, *읽글*, 867 참조. 룻기에서는 공허함으로부터 충만함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단어와 이미지의 반복법을 통해 강조되어 있다.

1장 6절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מַנְהֵל**(레헴)과 ‘임신’을 뜻하는 4장 13절의 **הַרְיוֹן**(헤라온)은 각각 ‘야웨’를 주어로 하는 **נָתַן**(나탄/주다)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롯기는 이 문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인 동시에 생명을 잉태케 하는 신이라고 제시한다. 롯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롯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문장들이 있다. 이 문장들이 롯기 전체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장과 4장의 두 본문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주제가 내포한 의미는 매우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롯기는 책의 구조 전체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내용은 롯기 전체에 산재해 있는 하나님 관련 본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수사학적 표현들과 신학적 의미 해석

롯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람들에게 공급하신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1장 6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근이 들었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 되었고(1:22), 밀 추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2:22). 롯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도 이삭을 주우며 사람들은 양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2:3 이하). 4장 13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롯은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다(4:16).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며, 이후에 그의 아들 이새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다윗이 탄생하였다(4:22).

4장 15절에서는 오벳을 **יְהוֹשֻׁבִּיב**(메쉬브 네페쉬/생명을 회복하는 자)라고 부른다.<sup>21)</sup> 하나님께서 롯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주체

21) **יָשַׁב**(슈브/돌아키다) 동사는 물리적인 방향 전환의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종교적

였다면(4:13), 룯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이 연속적인 본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룯기의 הַסֵּד(헤세드/자비, 선함, 공훈)가 사용된 본문들에서도 동일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1장 8절에서 야웨는 ‘헤세드’를 제공하는 주체로 묘사되었다. 2장 20절에서는 ‘헤세드’가 보아스와 하나님 양쪽 모두에 연결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sup>23)</sup>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국 보아스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 있다.<sup>24)</sup> 3장 10절에서는 룯에게 이 낱말이 적용되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을 통하여 현실의 삶 가운데 실행되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sup>25)</sup>

룯기에서 사용된 신명(神名)은 ‘하나님’(אֱלֹהִים) /엘로힘, 1:16), ‘전능자’(שַׁדַּי /샷다이, 1:20-21)<sup>26)</sup>, ‘야웨’(יְהוָה) /야웨, 1:6, 9, 2:4, 12, 3:13, 4:12-14)의 세 가지와 약간 변형된 형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אֱלֹהֵי יִשְׂרָאֵל) /야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2:12)이다<sup>27)</sup>. 모압 땅과

인 의미로 발전하여, 주전 8세기의 예언서들에서는 ‘회개하다’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H. J. Fabry, “שׁוּב”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 XIV, (Grand Rapids/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461-522. 1장에서 나오미와 룯이 모압 땅으로부터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 이 동사가 4장에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룯의 역할에 연관된 본문에서 사용되었다.

- 22) Eunny Lee, *룯글*, 867-868; K. M. Saxegaard, *룯글*, 207 참조.
- 23) R. D. Holmstedt, *Ruth* (Waco: Bayola University Press, 2010), 141.
- 24) C. John Collins, “Ambiguity and theology in Ruth—Ruth 1:21 and 2:20,” *Presbyterion* 19/2 (1993), 97-102.
- 25) הַסֵּד는 구약에서 245회 등장하고, 룯기에서 3회가 나타난다. 인간 상호적인 관계에서 세속적 의미로 사용된 이 개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데 적용되었고, 이후에 계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Zobel, “הַסֵּד” *TDOT*, vol. 5, 44-64. 룯기의 헤세드에 관하여 Panthakan Phanon, “Double Hessed of God in the Naomi’s Life (Ruth 1:19-22),” *AJPS* 13:1 (2010), 20-39 를 참고할 수 있다.
- 26) שַׁדַּי(샷다이/전능자)는 아카드어로 ‘산’을 뜻하는 šadû에서 나온 말로 추정된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도 언급된 이 낱말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다. R. D. Holmstedt, *룯글*, 97.
- 27) 이러한 신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적용된 경우들이다. 룯기 1장 15절의 신명은 모압의 신

유다 베들레헴에서의 상황을 서술한 1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신명이 대화와 해설 부분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2장에서 4장까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를 기록한 본문에서는 주로 ‘야웨’라는 신명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은 보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사말을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2장 4절이다.<sup>28)</sup>

2:4 전반부 אֲדֹנָי יְהוִה / 아도나이 임마깸  
 야웨께서 (a) -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b)

2:4 후반부 יְהוִה יְבָרְכֵנוּ / 예바라크카 아도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b)- 야웨께서 (a)

이 인사말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으며, 문장 사이에서는 교차대칭적 평행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문장은 ‘복’(b)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하심’(b)에 관한 내용이 서로 교차되는 형태로 평행을 이룬다. 이 문장들에서도 하나님이 주어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보아스와 추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나눈 인사말은 주고-받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등가의 가치를 갖는 내용임을 드러내 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룻기 2장 4절의 인사말과 수사적인 표현들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다.<sup>29)</sup>

혹은 신들과 관련된 것이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28) 룻기에는 가난한 농부와 부농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일들의 배경에서는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 등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이들이 추수할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던 율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임태수,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농업정책 연구,” 『구약논단』 제3집 (1997. 8), 76, 92-93.

29) Eunny Lee, *룻*, 867-868.

## 5.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롯기의 본문이해

### 1) 모압의 종교와 롯기

구약시대에 모압인들은 “그모스의 백성”(민 21:29, 렘 48:46)으로 불리었다. 이 명칭은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 ‘그모스’(Kemosh)에서 기인한 것이다. 후기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일정 기간 동안 모압인들은 가나안 지역의 경우처럼 다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압왕 메사 비문과 구약의 기록은 그모스가 고대 모압인들의 민족신으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으며, 그의 백성에게 땅을 수여하였고, 여신 아쉬타르-그모스가 그의 배우자였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30)</sup> 역사서에서는 솔로몬 왕에 의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모스의 산당이(왕상 11:7) 요시아에 의해 폐지된 일(왕하 23:13)과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전쟁 때에 모압왕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기록하였다(왕하 3:26-28).<sup>31)</sup>

이러한 기록들은 모압의 종교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종교의 ‘혼합주의’ 문제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롯기 1장 1절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בְּשֵׂטֵר מוֹאָב/비스테 모압)로 들어가서 거주했다는 기록과 15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들에게 “그의 신들에게”(אֱלֹהֵיהֶם 엘로헤하) 돌아가라고 권면했다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과 ‘민족’과 ‘신’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들로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준다.<sup>32)</sup>

30) F. W. Schmidt, “Chemosh,” *ABD*, vol.1, 895-897.

31) J. Gray, “Chemosh,”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DB)*, vol.1 (Nashville: Abingdon, 1980), 556; J. M. Miller, “Moab,” *ABD*, vol.4, 891-892.

32) 러스트(E. C. Rust)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신과 그 땅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신의 관할권은 그 지역 밖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한 사고를 롯기 1장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원시적인 수준의 종교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 C. Rust, *Judges, Ruth, 1Samuel, 2Samuel*, *The Layman's Bible Commentary*, vol. 6 (Richmond: John Knox Press, 1961), 72; 청훈(淸訓, 청훈은 강사문의 호이다)은 이스라

1 모압 땅	שְׂדֵי מוֹאָב (스데 모압/모압 지방, 1:1, 2, 6)...עֵץ(삼/거기, 1:2, 4)
2 모압 민족	נָשִׁים מוֹאָבִיּוֹת (나십 모아비요트/모압 여자들, 1:4)
3 모압 신	אֱלֹהֵיָּהּ (엘-엘로헤하/그의 신들에게, 1:15)
1' 이스라엘 땅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עֵץ (삼)... 1:17
2' 이스라엘 민족	어머니의 백성(עַמִּי 암메크/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עַמִּי 암미)이 되고 ... 1:16
3' 이스라엘 신	어머니의 하나님 (אֱלֹהֵיָּהּ 벨로하이크/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אֱלֹהֵיָּהּ 엘로하이)이 되시리니 ... 1:16)

하지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엘리멜렉 가족의 이주에 관한 기록에서 기근으로 인한 피난과 임시 거주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그 땅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장 15절에서 ‘그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나오미의 말에는 아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의 신에 대한 종교적인 구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16-17절에서는 룯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모압 여인 룯이 개종 (conversion)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해석은 의미 있게 평가해 볼 수 있다.<sup>33)</sup>

영지는 룯이 더 이상 이방여인이 아니며, 나오미와 그 가정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야웨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sup>34)</sup> 룯기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룯이 모압 지방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

엘 역사 초기에 여호와의 통치력도 이스라엘 영토 내에 제한되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사고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그가 문둥병을 고친 후에 이스라엘의 흠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사문, 『구약의 역사 이해』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216; 김선중, “성경법전의 민간신앙,” 『구약논단』 제17권 3호 (2011.9), 166-169.

33) Leon Morris, *Judges and Ruth* (London: The Tyndale Press, 1968), 41; A. Rothkoff, 윗글, 523.

34) ‘영지’ (榮至)는 김중은의 호이다. 김중은, “룯기의 구조와 신학,”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돌아온 사건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1장 20절에서 אֱלֹהֵי(삿다이/전능자, 참고, 산의 신)라는 신명을 사용하였다.<sup>35)</sup> 이 신명에 나타난 낱말의 어근은 1장 1절에서 ‘모압 지방’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מִדְבָּר(사데/지역, 들, 평야)와 ‘말놀이’(word play) 형태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36)</sup> 이 신명은 풍요, 보호, 생육 등의 주제와 연관성을 보여주며, 그러한 점에서 룻기의 종교적인 메시지와도 잘 연결 될 수 있다.

‘양식’(מַגֵּן/래헴)을 구하기 위해 모압 ‘들’(הַרְרָה)로 떠났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유다 베들레헴(בֵּית לֶחֶם/양식, 떡의 집)에서 양식을 얻게 되었으며, 이 일은 이스라엘의 전능자(יְהוָה)에게 돌아옴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표현들 속에 ‘풍요’의 주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서아시아 종교와 구약의 비교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룻기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모압 땅과 연결된 ‘모압의 신’(룻 1:15)이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전능자)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가나안 종교와 룻기

### (1) 룻기의 신관에 관한 이해와 해석

가나안 종교의 신들 가운데 ‘엘’(E)은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엘은 북쪽 산 위에 있는 장막에 거주하는 신이

『사사기·룻기』, 두란노 HOW주석 vol.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96.

35) 본문의 ‘삿다이’라는 신명은 창세기와 욥기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모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창세기에서는 43장 14절, 17장 1절, 28장 3절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 신명은 특별히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31회).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r. by M.E.J. Richardson, “אֱלֹהֵי” HALOT vol.2 (Leiden: Koninklijke Brill, 2001), 1420-1422 참조.

36) Talia Sultkover, “The Themes of Land and Fertility in the Book of Ruth,” JSOT vol 34.3 (2010), 291 참조.

며, 신들의 가족의 통치자이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다.<sup>37)</sup> 그의 아들 바알(Baal)은 폭풍의 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 아낫(Anat)은 바알의 배우자로 나타나며, 이 역시 전쟁과 풍요의 여신으로 인식되었다.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제의는 풍요와 다산의 주제를 중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에 속한 하늘의 삶이 지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sup>38)</sup>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낫의 성적인 결합이 지상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가 준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신앙은 바알 신전의 성직자에 해당하는 신전 창기와 제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땅의 풍요와 다산을 보장받았다고 했던 종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sup>39)</sup>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신들을 섬김으로써 ‘생명’과 ‘양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우가릿 문서와 마리 문서 등에 남아 있는 기원문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sup>40)</sup>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된 종교적 제의 전통과 풍속이 존재하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 공간 내에 공존하는 상황가운데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sup>41)</sup> 브라이트(J. Bright)는 룻기에서 배경 역사로 언급하는 사사시대

37)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42-43.

38) 강성열, “고대 근동 종교의 풍요 제의 이해,” 『신학이해』 제12집, (1994.4), 20.

39) 강성열, 『고대근동의 신화와 종교』(파주: 살림출판사, 2006), 63-68. 한편, 알베르츠(R. Albertz)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 종교 현상에 대한 종교사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유랑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웨를 유목민들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 숭배를 통해 아웨 종교를 보완하려고 했으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주의는 그 결과로 나타난 종교 현상이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 호세아의 비난 메시지를 가나안 풍요제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 왔다. 알베르츠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알베르츠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Raine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강성열 옮김, 『이스라엘종교사』, 1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살림출판사, 2003), 388-389 참조.

40) Cross, 윗글, 62-63; 274.

41)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 (2000. 6), 151-200; 김중은, “조

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생활과 관련된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중에는 야웨 종교와 바알 숭배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설명한다.<sup>42)</sup>

이러한 종교혼합주의의 문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였으며,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하였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물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는 신이 바알인가 아니면 야웨인가 라는 문제는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관'의 주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룻기 1장 6절은 야웨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4장 13절에서는 야웨께서 잉태하게 하셨다고 서술함으로써 생명 제공과 양식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룻기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수사적인 표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 이해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1:8), 복을 주시며(2:4),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2:4)으로 묘사되었다. 룻기는 책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통하여, 풍요와 다산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 (2) 룻기의 여성상에 관한 이해와 해석

한편, 구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들이 고대 서아시아 종교

---

상제사 문제에 대한 성경적 조명, "옛것과 새것"- 영지 김중은 구약학 공부문집 (서울: 한국 성서학연구소, 2013), 270-286 참조; 박종수는 출애굽기 32장과 열왕기상 11장에서 아론과 여로보암에 의해 바알의 상징인 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은 형상이 없는 야웨 종교를 형상이 있는 바알종교와 혼동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세영, 박종수,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2)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178. 북이스라엘의 지방 성소들에서 많은 경우에 풍요다산 제의가 행해졌고(호 1-4장, 암 2:7), 그 당시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의 숭배자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60-262).

의 풍요 제의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예들은 솔로몬 왕의 아내들(왕상 11장)과 이세벨과 아달리아(왕상 16:29-33, 왕하 11장)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민 25:15-18)의 이야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영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현실 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방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성들도 풍요제의의 실행자들로서 예언자들에 의해 비난 받았다(겔 8:14; 참고, 호 2-3장).<sup>43)</sup>

룻기에서 보여주는 여성상은 구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이방 여인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와 동행하기 위하여 모압의 가족과 집과 종교와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와 종교에 스스로를 적응시켰으며, 다말(창 38:2)과 라합(수 2:1-24) 등과 같이 구약에 나타난 이방 여인들의 긍정적인 상을 보여준다.<sup>44)</sup> 룻기 4장 14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영향을 받은 유다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묘사한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
구약에 나타난 부정적 여성상	고스비, 솔로몬 왕의 아내들, 이세벨과 아달리아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겔8), 호세아서의 여성 이미지(호2-3장)
룻기에 나타난 긍정적 여성상	모압 여인 룻(1:16-17)	유다 베들레헴의 여인들(4:14)

이 책에서 보여주는 룻과 베들레헴 여성들의 이미지는 풍요제의의 실행자가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룻기의 여성들을

43) A. Brenner, *The Israelite Woman* (Melksham: JSOT Press, 1994), 115-118; 에스겔 8장 14절에서 언급한 Tammuz (혹은 Dumuzi)는 메소포타미아의 풍요제의와 관련된 신이었다. G. H. Livingstone, *The Pentateuch in Its Cultural Environment*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87), 132-133.

44) A. Brenner, *룻기*, 118-119.

보았을 때, 롯기는 구약에서 이방 종교 제의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여성상에 대비되는 긍정적인 여성상을 롯과 베들레헴 여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롯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등장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 목적의 책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7. 나가는 말

롯기를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소설로 보든지 혹은 다윗 왕정 시기와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작품으로 보든지, 이러한 논의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 논문은 이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한 본문들을 롯기의 최종 본문 상에서 다시 살펴보는 작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롯기는 인간적 유희를 위한 단순한 소설이나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논쟁 서적이 아니라기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종교적인 경전으로서 읽혀져 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롯기의 본문을 해석하고 이 책의 기록 목적에 관한 이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롯기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담고 있는 1장 6절과 4장 13절의 두 본문을 수미상응구조(inclusio)로 구성함으로써 문학적인 전체 구조와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롯기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양식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신으로 명확하게 묘사하였고, 롯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고대 서아시아 종교들 가운데 룯기의 최종 본문에서 언급된 지역인 모압과 가나안의 종교는 풍요다산 제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모스와 바알 숭배의 영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혼합주의 종교 현상의 문제로 발전되었던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룯기는 풍요다산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매우 분명한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룯기에 나타난 여성상 역시, 이방 종교의 숭배자로 묘사된 구약의 부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룯기를 구약시대의 종교적 배경 속에서 야웨 종교의 호교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술된 책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제안할 수 있다.

## 8.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역사 이해』(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 강사문의 3인 공저, 『구약성서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강성열, “고대 근동 종교의 풍요 제의 이해,” 『신학이해』 제12집, (1994.4), 18-37.
- \_\_\_\_\_, 『고대근동의 신화와 종교』(파주: 살림출판사, 2006).
- 김선중, “성경법전의 민간신앙,” 『구약논단』 제17권 3호 (2011.9), 158-179.
- 김중은, “룯기의 구조와 신학,”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사사기·룯기』 두란노 HOW주석 vol.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_\_\_\_\_, “조상제사 문제에 대한 성경적 조명,” 『옛것과 새것』- 영지 김중은 구약학 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3).
- 노세영, 박종수, 『고대근동의 역사와 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박동현외 15인 공저,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송병현, “룻기의 신앙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사사기.룻기』 두란노 HOW주석 vol.7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임태수,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농업정책 연구,” 『구약논단』 제3집 (1997. 8), 76, 92-93.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제8집 (2000. 6), 151-200.
- Albertz, 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강성열 옮김, 『이스라엘 종교사. 1』(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Brenner, A., *The Israelite Woman* (Melksham: JSOT Press, 1994).
-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Bruggemann, W.,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Calderone, P. J., “Ruth, the book of,” *New Catholic Encyclopedia* (NCE), vol.12 (Washington, D.C.: Thomson/Gale, 2003).
- Campbell, Jr. E. F., *Ruth, The Anchor Bible (AB)*, vol.7 (New York: Double Day, 1975).
- Collins, C. J., “Ambiguity and theology in Ruth-Ruth 1:21 and 2:20,” *Presbyterion* 19/2 (1993), 97-102.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Eskenazi, T. C., & Frymer-Kensky, T. *JPS Bible Commentary: Ruth, JPS Tanakh Commentary*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1).
- Fabry, H. J., “רֹוּת”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 XIV (Grand Rapid/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 Fischer, I., *Ru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eiburg/Basel/Wien: Herder, 2001).
- Gray, J., “Chemosh,”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IDB)*, vol.1 (Nashville: Abingdon, 1980).
- Holmstedt, R. D., *Ruth* (Waco: Bayola University Press, 2010).
- Hubbard, R. L., *The Book of Ru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tr. by M. E. J. Richardson, “רֹתִי” *HALOT* vol.2 (Leiden: Koninklijke Brill, 2001), 1420-1422.
- Lau, P. H. W., *Identity and Ethics in the Book of Ruth*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1).
- Lee, E., “Ruth, Book of,”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IB)*, vol.4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 Livingstone, G. H., *The Pentateuch in Its Cultural Environment*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1987).
- Morris, L., *Judges and Ruth* (London: The Tyndale Press, 1968).
- Nielsen, K., *Ruth* tr. by E. Broadbridge, *Rut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Phanon, P., “Double Hessed of God in the Naomi’s Life (Ruth 1:19-22),” *AJPS* 13:1 (2010), 20-39
- Rothkoff, A., “Ruth, Book of,” *Encyclopedia Judaica (EJ)*, vol.14, (Jerusalem: Keterpress, 1973).
- Rust, E. C., *Judges. Ruth. 1Samuel. 2Samuel, The Layman’s Bible Commentary*, vol. 6 (Richmond: John Knox Press, 1961).
- Saxegaard, K. M., *Character Complexity in the Book of Ruth* (Tübingen: Mohr Siebeck, 2008).
- Sutkover, T., “The Themes of Land and Fertility in the Book of Ruth,”

*JSOT* vol 34.3 (2010), 283-294.

Trible, P., "Ruth, Book of," *The Anchor Bible Dictionary (ABD)*, vol.5  
(New York: Doubleday, 1992).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이종한 옮김, 『구약성경 개  
론』(외관: 분도출판사, 2012).

Zobel, "רֹחַ",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  
V (Grand Rapid/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검색어

고대 서아시아 종교 (=고대 근동 종교)

풍요다산

모압

룻

하나님

## A Study on the purpose of the book of Ruth in the context of Ancient West Asian Religion

Jin-Myung Kim, Th. 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book of Ruth has been interpreted as a short story or novella which has a political purpose: to protest the exclusionary policies of Ezra-Nehemiah(prohibition of mixed marriage), or to legitimate David's monarchy and to explain his providential ancestry. In the OT studies of Ruth, the diachronic method has been used, and the issue of 'human being' is alway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se arguments. But Ruth has been read primarily not as a political book but as a canon of Judaism and Christianity. For this reason, this paper explores the descriptions of God in the final text of Ruth and the religious and theological meaning of these texts in the context of ancient West Asian Religion.

This study uses a synchronic method(Canonical, Literary, Religious) to

www.kci.go.kr

expound the book of Ruth. It attempts to propose a new understanding for the purpose of the writing of Ruth. The religions of the Moabites and the Canaanite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fertility cults, and they understood that their gods(Baal-Anat, Chemosh-Ishtar Chemosh) gave them food and life. The book of Ruth, however, insists that YHWH gives food and life to the Israelites. It can be found in the verses of 1:6 and 4:13 which compose 'inclusio' in this book and some texts of this book directly and indirectly show YHWH as a God who gives food, life, goodness and blessing to His people(1:8, 2:4, 2:20).

The fertility cults of Moab and Canaan continually influenced the Israelite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settlement in Canaan to the end of the kingdom of Israel. In this specific historical environment, Ruth proves that the core concepts(food, life) of paganism belong to God and describes Ruth and Naomi as positive images of faithful women in the OT. These elements of this book clearly delivered a religious message.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proved that this book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apologetics.

## Keyword

Ancient West Asian Religion(=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Fertility

Moab

Ruth

God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8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5일

[www.kci.go.kr](http://www.kci.go.kr)